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제 7 호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친애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를 열람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막 뒤로한 2011년에,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안정적인 발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호남·제주지역과 중국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양측은 정치, 경제무역, 문화 등의 협력 분야가 끊임없이 확장되었으며, 인적교류 또한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가 창간 이래, 비록 내용과 번역, 제작상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각계각층의 여러 친구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고, 많은 기관과 개인분들께서 추가배송을 요청하셨으므로 소식지 인쇄량이 예초의 500부에서 2,000부로 증가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독자 여러분의 인터넷 예약구독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총영사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각계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건의사항을 환영합니다.

2012년은 중·한 양국 관계가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로, 우리는 중·한 수교 20주년과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그리고 동시에 양국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지정한 “중·한 우호교류의 해”로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서남지역을 방문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현지 친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여 새로운 한 해에도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또한 중·한 관계를 튼튼히 다지고 양국민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힘을 공헌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 閻鳳蘭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2년 1월 편역·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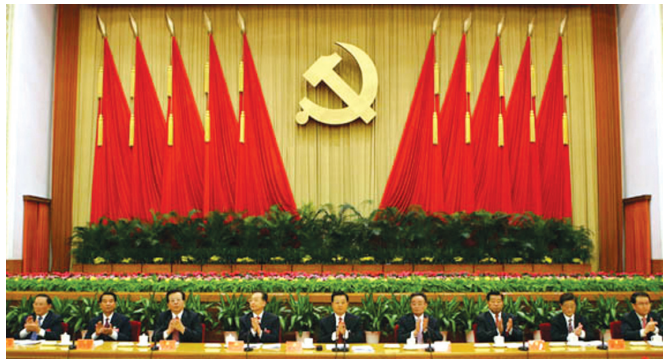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중국 주요 뉴스



2011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2주년이다. 이른 아침, 중국 각지에서 온 12만명 국민이 천안문광장 및 주변 지역을 찾아 국기계양식을 관람했고, 모두가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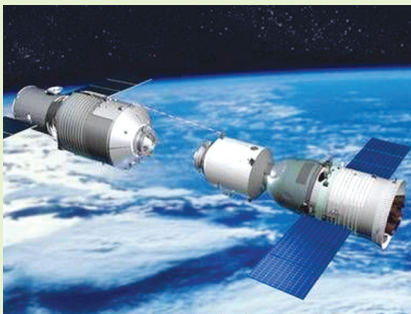
10월 14일, 제 110회 중국 수출입 상품 박람회 및 중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10주년 포럼을 광저우에서 개막하였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축하 편지를 보내왔고, 원자바오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는 중국의 종합적 국제무역전시회 중에 가장 유구한 역사이고 가장 큰 규모이며, 상품 종류 및 참가기업이 가장 많고 거래성립 효과가 가장 좋은 박람회이다. 매매 총액은 중국의 일반 무역 수출 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2,4만개의 기업이 참가하였다.



10월 15일 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7회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도로를 지키고 문화체제 개혁을 심화시켜 문화의 대발전·대번영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핵심가치체계 구축을 근본적인 임무로 여기며, 인민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목표점으로 삼고, 온 민족의 문명 자질을 높이고, 국가적 문화 실력은 강화하여, 중화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10월 31일 베이징에서 중국·라오스·미얀마·태국 등 메콩강 유역 4개국은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메콩강유역의 엄준한 안전체제에 대해 4개국이 메콩유역의 안전 공조 시스템을 형성할 것을 연구하였으며, "10.5"사건(10월5일 "화평호"와 "육홍8호" 두척의 상선이 메콩강 금삼각수역에서 습격을 당해 중국 선원 13명이 살해 당했다) 진상 규명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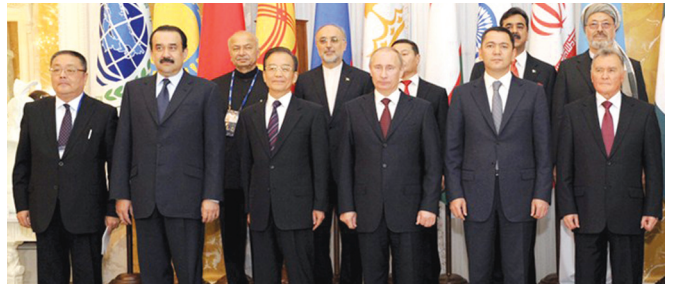
11월 1일 5시 58분, 선저우 8호 우주선이 발사되었고 예정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였으며, 11월 3일, 14일은 텐공1호와 2차레 도킹에 성공하였다. 16일 텐공1호에서 분리하여 17일 지면으로 돌아왔다. 선저우8호와 텐공1호의 성공적 발사 및 도킹은 중국이 이미 기본적으로 우주공간 도킹능력과 간단한 우주실험실 건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징한다.



제6차 G20 정상회담이 11월 3일 프랑스 칸느에서 열렸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그는 G20은 동고동락하고 협력하여, 윈윈정신으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은 자신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다른 국가와의 경제 사회발전과 세계 경제 금융의 안정을 위해 공헌하였다.



11월 7일 신화통신사 창사 80주년 기념회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이장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기념사 중에 앞으로 신화통신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 수준의 뉴스 통신사로 발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11월 7일 원자바오 총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0회 상하이 협력기구(SCO)총리회담에 참석하였다. 원자바오는 연설중 상하이 협력기구 성립 10년 이래 지역안전유지 및 공동발전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민족분열, 종교, 폭력테러 등을 타격하는 협력을 형성하였으며 성원국가들간 세대우호의 신념을 기르게 되었다. 중국측은 각국 모두와 함께 본 지역과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 표했다.



11월 8일은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선거 투표일이다. 후진타오, 우방궈, 원자바오, 시진핑, 리커창 등 각자의 투표구에서 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였다. 후진타오는 투표 후 북경시 서구의 유권자로써,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인민대표대회 선거를 잘해야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지키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됨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1월 12일 후진타오 주석은 하와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회견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 및 공동관심의

국제와 지역문제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13일 APEC 제19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성장방식 전변과 경제성장실현>을 주제로 연설을 발표하고, 중국은 지역과 국제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전세계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지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을 위하여 더 큰 공헌을 하겠다고 표했다.



12월 7일 중국 국무원(신문관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대외무역>백서에 따르면,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의 143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10년까지 WTO가입시의 모든 승낙조항은 전부 이행하였다. 또한 중국 세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WTO가입10년 이래, 중국의 무역총액이 2001년의 5,096.51억 달러에서 2010년의 2.97만억 달러에 달하였고 연평균 21.6%로 성장해 왔으며, 세계 수출국 1위 및 수입국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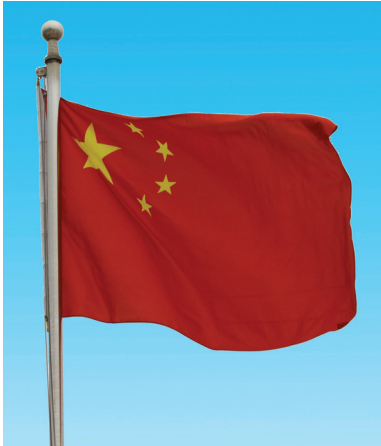
2012년 1월 9일~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방문하였으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우방궈 전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자바오 총리와 회견하였다.

후 주석은 중한수교 20년, 특히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수립 이래, 양국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양측은 정치·경제무역·인문 등 분야에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국제 및 지역적 문제에도 양호한 소통과 공조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중·한수교 20주년이자 중·한우호교류의 해이며, 중국은 한국과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시키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양국관계의 대국을 유지하고 양 국민간의 우호감정을 증진시키는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후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함으로써, 각 측은 이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중국은 일관하게 남북 대화로 관계 개선과 협력 추진을 지지하겠다고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이미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수교 20주년을 새로운 계기로 더욱 밀접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다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하게 지키겠다고 표했다.

1월 11일, 양국은 <중·한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하여, 2008년 5월, 8월에 양국 정상들 상호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성명의 각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한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충실시키고, 중·한수교 20주년 및 중·한우호교류년 기념행사를 함께 치르며, 중국이 한국 제주도에서 총영사관 설치 등 문제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달성하였다.





지구의 동쪽, 13억이 넘는 인구의 문명고국인 중국은 지금 현대화 과정에서 전진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 발전 노선을 선택했고,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수 차례 세계를 향해 평화 발전 노선을 시종일관하게 지키고, 평화 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를 보호하는 데에 힘쓰며, 각 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진한다고 약속하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평화 발전 노선을 걸어 나갈 것이다.

1. 중국의 평화 발전 노선 개척

평화 발전 노선은 무엇인가?归结해보면, ①세계평화 보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발전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 ②자신의 역량에 의거하고 개혁 창신으로 발전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대외 개방을 견지하며 타국의 좋은 경험을 배우는 것 ③글로벌 경제 발전 흐름에 따라 각 국가와 호혜적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 ④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 평화와 공동 번영하는 평화적·화합적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5,000년의 문명사를 거쳐 중국 각 민족은 자신들의 근로와 지혜로 눈부신 중화문명을 창조하였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창건하였다. 19세기 중엽, 서방 열강국가들이 포함(炮舰)으로 굳게 닫힌 중국의 문호를 열고, 내외외환으로 중국은 점차적으로 반식민지, 반봉건주의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국내 전쟁의 혼란이 끊이지 않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1911년의 신해혁명은 중국의 수 천년 간의 통치제도였던 군주전제제도를 종결시켰지만 중국의 반 식민지, 반 봉건 사회성의 근본적 변화와 중국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중국 국민들을 이끌어 의열하게 싸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으며, 민족의 독립, 인민 해방을 실현시키고 중국 역사의 신세기를 열었다. 신중국 건립 60여년, 특히 개혁개방 30여년 이래 중국은 온 힘을 다해 본국 국정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을 연구하였고, 고된 노력으로 본국 국정에 알맞은 발전 노선을 찾았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노선이다.

평화발전 노선에 따라 중국은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개혁의 과정을 거쳐 현저한 발전 성과를 취득하였고, 세계 번영과 안정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기여하였으며, 세계와 더욱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종합적 국력은 대폭 상승하였고, 봉쇄·반봉쇄에서 전체 개방을 실현시켰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여 세계 평화와 세계적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최종 목표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내적으로 발전과 화목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협력과 평화를 추

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바로 중국 국민의 고된 분투와 개혁 창신과 세계 각국과 장기간 우호적 공생 그리고 평등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전세계 인류발전과 진보를 위해 반드시 공헌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국가의지를 상승시켰고, 국가발전 기획과 정책 방침을 전환시켜, 중국 발전 과정의 광범위한 실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은 다음의 방면에 대한 노력을 결의하였다.

1)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 하여, 경제구조를 주공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발전을 제약하는 자원환경의 난관을 타파한다.

2)본국 자원과 시장의 우세한 점을 더욱 발굴하여 국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계시장에 더욱 많은 우수 품질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더욱 많은 상업적 기회를 제공한다.

3)더욱 신속하게 화목한 사회와 국민 생활 개선을 중점으로 사회 건설 추진하고, 화목한 사회의 민생 기초를 다지며,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증속 시키고, 적극적으로면서 안전하게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4)호혜적 개방 전략을 실시하고,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대외 투자와 협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순차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

5)평화적 국제환경과 외부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평화공존 다섯 가지 항목 기본 원칙이란 기초 위에, 모든 국가와 우호 협력 발전을 견지한다.

3. 중국 평화적 발전의 대외 방침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평화적 발전에 상응하는 국제관계이념과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1)화목한 세계 건설을 추진한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목적이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영구적 평화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화목한 세계 추진에 대한 공동 인식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협상하며, 국제관계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의 균형과 평등한 혜택, 공동이익의 방향으로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적으로 상호간 경험들을 거울로 삼고, 상이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하고,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류문명의 번영과 진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전상 상호 신임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적 방식을 견지하고, 전쟁의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보호한다. 환경상 상호간 돕고 협력하여 추진하고, 인류가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지구를 애호한다.

2)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 견지. 평화 공존 5가지 항목 원칙의 기초를 견지하고, 모든 국가와 우호 협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 및 국가단체와 동맹을 맺지않고, 사회제도와 의식형태의 차이에 따라 국가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각국 국민의 사회제도와 발전 노선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크고 강한 자가 작고 약한 자를 기만하는 것에 반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 서로간 공통점을

찾고 이견은 보류하며 대화로 협상하여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과 세계인들의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떠한 사건 본질에 의거하여 옳고 그름에 대해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공정심을 갖고, 정의를 신장하며, 국제사무 중 건설적인 작용을 적극 발휘한다.

3) 상호 신임,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이란 새로운 안전관념을 주장하고, 종합적인 안전과 공동안전, 그리고 협력의 안전을 모색한다.

4) 적극적으로 국제책임관을 가진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중국은 국제법과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힘써야 할 국제적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5) 선린우호적 지역 협력관념을 따른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 선린우호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화목한 아시아 건설을 추진한다. 아시아 각국의 상호 존중, 상호신임 증진, 공통점 모색과 이견 보류를 주장하고, 대화와 우호협상을 통한 영토와 해양 권익 쟁탈을 포함한 각종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한다.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과 세력 범위를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영구적 안전은 주변 국가의 기회이지 위협이 아니다.

4. 중국 평화발전의 세계적 의미

중국의 평화발전은 “국가가 강하면 반드시 패권한다” 라는 대국출현에 대한 전통적 모형을 타파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친지

개복의 변화가 발생하는 오늘날, 그 무슨 주의, 무슨 제도, 무슨 모형, 무슨 노선이든, 시대와 실천의 실험을 겪는다. 각국 국정은 천차만별이고, 세계상 가장 좋고 만능적이고 불변의 발전 모형은 없으며, 본국 국정과 잘 맞는 발전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중국의 발전노선은 본국 국정에 의해 형성되었고, 본국 국정에 적합하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와 분리될 수 없고, 세계 번영과 안정도 중국과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이 얻은 발전 성과는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 될 수 없고, 중국의 향 후 발전은 더욱 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중국은 중국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지지, 도움을 주는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평화발전 노선을 걸어가고 있고, 이는 인류발전사에서 새로운 위대한 탐색이자 실천이고, 이 역시 단 하나의 착오 없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중국은 모든 우호적 건의와 선의의 비평에 대해 환영한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의 전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중국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정(完整) 그리고 사회 안정을 소중히 함을 존중하고, 중국이 하나의 큰 개발도상국가로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발전상 어려움, 그리고 중국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중국인들이 평화발전 노선을 걷는 성의와 다짐을 믿고, 이에 지지해 주고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중국의 매력 : 중국 설 - 춘절(春節)



새배

춘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로 새해에 기원 축하 및 오락을 즐기는 중화민족의 가장 성대한 전통 명절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중국인은 춘절을 지내는 데 이미 4,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춘절은 옛날에 “元부”이라 칭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양력으로 연대를 기재하기 시작하면서 곧 양력 1월 1일을 “元부”으로 칭하고,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컬어 “춘절”이라 칭하였다.

춘절은 비록 양력 정월 초하루로 정해져 있지만, 춘절을 경축하는 행사는 결코 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小年”(음력 23 혹은 24일)부터 대청소를 포함한 설맞이 용품 사두기, 춘련(春聯)을 붙인다. 사자춤, 용등(龙灯), 나무다리타기, 만두빚기, 폭죽 터트리기 등 모두들 “忙年”을 시작한다. 설날 그믐날(음력 설날 30 혹은 29일) 중국인들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이고, 가족 밥을 먹고, 하늘과 조상께 제사를 드린다. 음력 정월 초하루, 아랫사람은 윗어른께 먼저 새배를 드리며 윗어른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윗어른은 아랫사람에게 새배돈을 주며, 아랫사람은 새배돈을 받아 안녕하게 한 살을 보내게 된다는 축복이다. 오늘날에는 과거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와 같은 활동을 제외하고는, 춘절의 주요한 풍습은 모두 완벽하게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다. 사람들은 성대한 의전과 열정으로, 신년을 맞이하고, 봄날을 맞이한다.



춘절 장보기



사자춤



폭죽

2011년 10월 28일~29일, 중국 장애인예술단이 광주에서 대형 음악가무 공연(나의꿈)을 두차례 펼쳤다.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국회의원, 대한불교 조계종포교원장 혜종스님,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그리고 현지시민 3,0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영 총영사는 공연을 관람한 후에 타이리화(郁丽华) 단장과 단원을 만났다.



11월1일, 한·중 문화협회 광주지회가 새 사무실 개소식을 거행했으며,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 안상록 광주지회 회장 및 협회 고문, 이사와 회원이 참석하였고, 염봉란 총영사는 초청에 의하여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11월4일, 총영사관은 전북대학교에서 전북 지역의 중국유학생 영사·안전 좌담회를 열었고, 중국유학생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총영사관 영사는 중국영사

보호, 협조와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학생들에게 안전방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중·한 양국간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11월 9일, 중국 광저우(广州)도서관 소장 서화 작품전이 광주시립도서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하민 광주시립도서관장, 광주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 중국 광저우도서관 방가충(方家忠)부관장, 염봉란 중국주광주총영사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광주시 의원, 시민 100여 명이 전시회를 관람 하였다.



11월10일~13일, 장신썸(张鑫森) 주한중국대사는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업무지역을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을 예방하고, 현지 화교들과 만났으며, 광주 총영사관을 시찰하고 영사들과 간담회를 갖었으며, 함평군과 순창지역등을 방문하였다. 장 대사는 광주시와 중국 관련성·시간의 우호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광주시와 중국의 관련 도시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17일, 염봉란 주광주총영사가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를 방문하여, 군산시 이학진 부시장, 군산세관 정종기 세관장, 군산해양경찰서 최창삼 서장과 회견을 가졌고, 군산 화교협회와 화교학교를 방문했다.



11월 18일, 염봉란 주광주총영사는 한국 광주·전남 중소기업청과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의 요청으로 “중·한 관계발전과 중국여성, 여성기업가”의 주제로 강연을 했다.



11월 29일, 강서성 정치협상회의 이화동(李华栋)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강서성 식품안전교류단이 전남남도 방문하였으며, 전남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를 회견하고, 전남도청 주관부서와 식품안전 간담회를 갖었으며 현지 식품생산기업을 견학했다. 염봉란 총영사는 상술 활동에 동참하였다.



11월 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 정치협상회의 홍콩·마카오·대만화교사무위원회 양종휘(杨崇汇)부주임(장관급)이 전국 정치협상회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화교협회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갖었다.



2011년 12월 15일, 염봉란 주광주총영사는 한국 전라북도 우석대학교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의 평화발전과 중한관계가 동북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2월 19일, 염봉란 총영사는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와 회견을 가졌다. 전남도청 김동현 경제산업국장, 양복완 관광문화 산업국장, 류정희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참석하였다. 양측은 2011년 중국 성·시(省市)와 전남도간 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대 중국 관계 추진 등 화제를 둘러싸아 심도있게 의논하였다.



12월 19일, 주광주총영사관이 한국 광주시 광산구청 그리고 한·중문화협회광주지회와 공동으로 중국국민안전 및 권익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행사에 광산구의 중국 근로자, 중국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민자 대표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12월 20일, 염봉란 총영사는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신년 친선행사를 함께 하였다. 염 총영사는 중·한 수교 20주년인 2012년에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광주시와 중국 지방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다. 강 부시장은 광주시청은 중국기업 투자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돌파하려 힘쓸 것이며, 이에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시청 또한 지속적으로 총영사관의 업무를 지지할 것이라 전했다.



12월 21일, 염봉란 총영사와 김승수 전라북도 부지사는 연말 업무회견을 가졌다. 염 총영사는 전라북도는 중국과 인접하는 지리적 우세 및 강소성 등 발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양측의 심도있는 교류와 협력영역을 확대시키길 기대한다고 표했다. 김 부지사는 내년엔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며, 양측의 더 많은 협력을 위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중국주 광주총영사관이 제22회 “총영사관의 날” 행사를 열어, 뛰어난 중국청년미술사 빠오칭동(包青冬)을 영사관에 초청하여 변검 및 마술 공연을 펼치도록 하였고, 이에 광주남부경찰서 경찰관과 광주시민 40여 명이 관람하였다. 마술사와 관중들은 서로 교류하였고, 광주시민들은 중국마술의 독특한 기술과 매력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였다.



12월 28일, 염봉란 중국주광주총영사는 한·중문화협회가 개최한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 한·중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 행사에 한중문화협회광주지회 안상록 회장, 협회고문, 이사, 회원 및 중국 유학생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수성(甘肅省) 짱예시(張掖市) 단샤지모(丹霞地貌)



단샤지모는 붉은 사암(砂岩)이 장기간 풍화 분리 및 유수(流水)의 침식작용을 거쳐 형성된 산봉우리와 기암괴석의 특수한 지모이며, 이 지모가 최초 발견된 중국 광동 단샤산(丹霞山)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다. “중국단샤지모”는 2010년 8월 1일 “세계문화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짱예시 치련산(祁連山) 단샤지모는 간쑤성 짱예시 임택현과 구위족 소수민족 자치현에 위치해 있다. 칠색하, 칠색담, 칠색병, 칠색련, 칠색호, 화해, 도산, 대선패, 채색구릉 등 많은 절경기관(奇觀)이 있다. 매번 일출이나 일몰 때는 단샤지모가 가장 신비롭고 기이할 때이며, 당신에게 대지의 맥박(脈搏)의 두근거림과 혈액의 흐름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그 황량한 느낌과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중국 서부지역 특유의 품격과 기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서비스 ARS 자동 응답 시스템 갱신 ◎

1월 12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 ARS 자동응답 시스템 서비스(번호: +82-62-3688688)를 개통하여 업무지역 내의 중한 양국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은 더욱 상세하고 확실시 되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권, 여행증, 비자, 공증, 인증, 혼인신고, 유학귀국증명 등 각종 증서 신청 규정 및 관련 비용, 소요 시간, 주 사항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었고, 전화 조작 순서의 상세한 설계와 사용인으로 하여금 편리하고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2. 서비스는 더욱 친인간적이다.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로 하여금 중·한 양국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3인까지 동시에 통화연결이 가능하다. 영사 증명 업무 외에도 필요시에는 각 담당 영사와 직접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휴무 등의 대외업무나 직원이 부재 중일 경우를 고려하여 특별히 비업무시간을 통보하고 동시에 24시간 긴급 상황시 당직 핸드폰 번호를 소개하였다.

3. 비용이 더욱 절감되었다. 예전의 서비스와 달리, 현 시스템은 전화를 걸면 일반 유선 전화의 시내 기본요금만 적용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 개통 초기에 실수와 부족을 면하기는 어렵다. 많은 양해를 주시고 더불어 소중한 의견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 저희 총영사관은 점차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단을 더욱 풍부시키고 질을 높이는 데에 힘쓸 것이며, 업무지역 내의 중한 양국 국민에게 더 많고 더 나은 영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다.

驻光州总领馆
领事服务ARS自动答录电话
+82-62-3688688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 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 스 번 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페이지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zt/journal/>

